

광주·전남이 배출한 태극전사 5명 “꿈은 이루어 진다”

월드컵 대표 후보 5명 비공개



Table with 5 columns: 이름, 기성용 (25·선덜랜드), 지동원 (23·아우크스부르크), 김보경 (25·카디프시티), 윤석영 (24·퀸스파크 레인저스), 홍정호 (25·아우크스부르크). Rows include 생년월일, 학력, 신장, A매치 데뷔, A매치 출전경력, 월드컵 출전 경력, 특이사항.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차세대 스트라이커 ‘지동원’ 등

광주·전남 5명, 전북 3명...원정 첫 8강 진출 활약 기대

브라질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구촌을 달굴 태극전사 23명 가운데 광주·전남과 인연을 맺은 선수는 5명이다. 전북에는 3명이 있다.

의 사별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이다. 기성용은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 광주시 운동장에서 태어나 순천 중앙초·광양제철중을 거쳐 광주 금호고를 졸업했다.

순천 중앙초로 전학을 보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소년체전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선수에 뽑혔고, 차범근 축구대상을 받았다. 광양제철중 1학년 때부터 5년간 호주로 축구유학을 떠났다. 유학을 마치고 광주 금호고로 돌아왔다.

키 못지 않은 발재간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활동반경이 넓고 양발을 모두 쓰는 공격수다. 어느 포지션에 놓아도는 성실한 플레이, 공격을 창출하는 영리한 움직임, 장신선수에게 보기 드문 유연성과 연결력, 일회일비하지 않는 침착함과 겸손함, 공격수로서 필수적인 강심장을 두루 갖췄다.

대포 왼쪽 수비수다. 윤석영은 기술이 좋고 킥에 정확도가 있다. 안정된 수비, 활발한 공격 가담, 정확한 클로스와 프리킥, 수비수와 1대 1에서 이길 수 있는 돌파력 등을 갖췄다. 윤석영은 왼발을 주로 사용한다. 왼발을 쓰면 왼쪽 측면에 침투하고 나서 한 발자 빨리 크로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주 외도초·중앙중·중앙고를 거쳐 조선대를 나왔다. 대학시절 2년간 홍정호를 가르쳤던 한영일 조선대 감독은 “홍정호는 수비력 1대1인 방어능력·헤딩능력·압박능력 등 모든 게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보경(25·카디프시티)은 박지성이 꼽은 ‘박지성의 후계자’다. 구레 광의면이 고향인 김보경은 서울 오류초·원삼중·신갈고·홍익대를 나왔다. 2010년 일본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다가 잉글랜드 무대 입성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전력분석. H조: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한국. Includes player profiles for 에당 아자르, 소피아 페글리,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 손흥민 and tactical diagrams for each team.

‘월드컵 모드’ 홍명보號

박주영·기성용 등 대표팀 9명 오늘 1차 소집

14명은 팀 일정 따라 입소...28일 튀니지와 평가전

6월 개막하는 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12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다. 대표팀은 이날 소집을 시작으로 30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할 때까지 파주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그 사이에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23명의 선수 가운데 12일 파주에 모이는 선수는 9명이다. 골키퍼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을 비롯해 박주영(와트퍼드), 기성용(선덜랜드), 이청용(불탄), 이근호(상주), 김신욱, 이용(이상 울산) 등 필드 플레이어 6명이 1차 소집 대상자들이다. 이 중 박주영과 기성용은 나란히 부상 탓에 재활 및 치료 중인 선수들이다. 나머지 선수 14명은 소속팀 일정에 따라 차례로 입소할 예정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구자철(마인츠), 지동원, 홍정호(이상 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레버쿠젠) 등은 11일 시즌이 끝남에 따라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잉글랜드에서 뛰는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등도 이번 주에 시즌을 마치는 대로 소집 절차를 밟게 된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을 무대로 하는 선수들 역시 대부분 이번 주 중에 대표팀 합류를 마친다. 대표팀은 소집 초기에는 부상 중인 선수들의 재활과 유럽에서 시즌을 마치고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회복 훈련 등에 전념한다. 21일까지 기초적인 몸 만들기를 끝내고 이후 약 1주일간 마지막 국내 담금질을 할 예정인 대표팀은 28일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월드컵 출전식을 함께 치르고 나서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떠난다. 이후 마이애미에서 최종 훈련을 통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6월10일 미국 현지에서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6월12일 브라질 현지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에 도착해 18일 러시아와의 1차전을 준비하게 된다.



홍명보 감독

연합뉴스